

# 어머니 거부/방임적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및 보육 경험에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조절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Associations of Aggression, Maternal Rejection/Neglect,  
Child Temperament, and Daycare Experience  
: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전공  
박사과정 이 성 복\*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 교수 신 유림\*\*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Doctoral Candidate : Lee, Sung Bok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 Shin, Yoolim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aggression and rejection/neglect by mothers, child temperament, day care experience for preschoolers;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was investigated. The subjects were 338 preschool children. Teac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that assessed aggression and self-regulation. Mothers reported on the temperament of children and parenting behavior. The rejection/neglect by mothers, child temperament, and daycare experience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ggress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was found only in daycare experience, which suggests that high self-regulation protects aggression from day care experience.

▲주요어(Key Words) : 공격성(aggression), 양육태도(parenting behavior), 기질(temperament), 자기조절(self-regulation)

## I. 서론

유아가 성장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대상은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친구, 교사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사회적 관계

를 맺는 형태도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유아기의 사회적 경험은 전 생애에 걸쳐 사회적 기술의 습득과 적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반면에 유아기에 발생하는 부적응 행동은 이후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부적응 행동으로 위축·고립된 행동, 공격적이고 잘 싸우는 행동, 산만한 행동 등이 있다. 특히 공격성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을 나타내고,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대표

\* 주 저 자 : 이성복 (E-mail : yeslam@hanmail.net)

\*\* 교신저자 : 신유림 (E-mail : yoolim@catholic.ac.kr)

적인 문제행동이다.

공격성은 또한 현대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은 표출되는 행동의 형태는 다르지만 유아기에 습득된 공격적 행동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경향으로 인하여 여러 심리사회적 문제 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remblay, 2000).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주요 교육 목표는 친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것과 함께 공격성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공격성은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빈번하게 공격성을 보이는 유아는 가정에서 받은 부정적인 양육과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 등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일 수 있다(박윤조·송하나, 2008). 아동의 공격성은 부모의 적의적인 태도 및 신체적인 체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Olweus, 1993). 또한 부모가 아동이 보이는 신호에 적합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서와 통제를 빈번하게 표현하며 강압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아동은 높은 공격적 성향을 보인다(Patterson, 1992).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에게 양육행동 대신 부모와 자녀관계의 특성을 보고하도록 한 결과, 부모-자녀의 갈등적 관계가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수입 및 교육수준과 같은 요인들이 공격성을 예언해주는 요인이었다. Vaillancourt 등(2007)은 공격성과 부모-자녀사이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및 비일관적인 양육태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러시아 유아를 대상으로 한 Hart 등(2000)의 연구에서도 엄마가 강압적이며 반응성이 부족하고 부부 간의 갈등 정도가 높은 경우에 유아의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아동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공격적 행동을 학습할 수 있으며 다양한 모델 중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강력한 공격성의 모델 역할을 한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자주 접하게 되므로 공격적 행동을 더욱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은희·이미숙, 2004).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생후 초기의 공격적 행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어린 시기 동안의 부모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tterson, 1992). 이는 부모가 아동의 좌절과 충족의 경험을 통제하고 초기의 공격적 표현을 강화하거나 차별하며 공격적 행동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모태도는 아동에게 공격행동의 모델로 작용할 뿐 아니라 공격적 행동이 타인을 통제하는 수단이 됨을 아동이 배우게 될 수 있다. 반복되는 강압적 가족관계는 공격성을 촉진하며, 이러한 가족 분위기에서 양육된 아동이 사춘기에 반사회적으로 발전하는 경

향이 있다(Patterson, 1992).

유아기 공격성에 관련되는 개인적인 변인으로 기질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기질은 유아들의 행동을 특징짓는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뜻하며 기질을 구성하는 하위 유형 중 활동성과 정서성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 행동 연구에서 관련 있는 변인으로 자주 다루어져 왔다.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은 항상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이해 과도한 활동을 유발하게 되며, 이와 같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특성은 유아의 공격성을 조장하며 영향을 줄 수 있다(윤진주 등, 2005). 또한 정서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표현방식을 나타내는 정서성은 유아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질의 하위 유형이다. 부정적 정서를 보이는 유아는 친사회적인 행동 성향이 낮은 반면에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Eisenberg & Fabes, 1992). 또한 쉽게 좌절되거나 분노를 표출하여 만족지연 및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자기 조절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Eisenberg & Fabes, 1992).

유아에게 있어서 가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미시체계는 보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경험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결과가 함께 보고되고 있다. 초기에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영아기, 걸음마기 및 학령전기에 걸쳐 보육기관에서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사회·정서적 적응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Phillips 등(1987)의 연구에서는 영아기에 보육시설에 다녔던 유아가 가정에서 양육된 유아보다 신체적, 언어적으로 더 공격적이고 활동적이었다. 김숙령(1997) 연구에서도 생후 1년 이전에 보육을 경험한 유아들은 불안-두려움, 과잉활동성 및 주의 산만함을 보였으며, 박경자(1992)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유아들은 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교사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 또한 출생초기부터 보육경험을 한 아동이 공격성과 위축성이 높고 성인에 대한 순응성의 정도가 낮았다(Belsky, 1988). Phillips 등(1987)의 반면에 보육경험이 많은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경험이 많으므로 또래 지향적임을 나타냈다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로 보고되고 있다(Aureli & Procacci, 1992).

기질과 함께 공격성과 관련 있는 또 다른 개인변인으로 자기조절을 들 수 있다. 자기조절 능력은 유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고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다. 자기 조절이란 자기 목적과 상반되는 갈등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행동을 하는 능력을 의미하다(Shields & Cicchetti, 1998). 자기조절은 만족지연능력 및 성인의 지시에 따르는 행동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사회성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 조절 능력이 낮은 유아는 사려성이 결핍되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사회 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서는 폭력과 일탈을 일삼는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Goodman et al., 1993). 반면에 자기조절능력이 발달된 유아는 주의 집중력과 협동적이고 사회적 유능성이 높았다(Eisenberg & Fabes, 1992). 자기조절의 이러한 특성에 기초해 볼 때, 자기 조절은 공격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해주는 중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유아기 공격성과 정서조절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보면, 정서조절능력은 공격성을 가장 잘 예언하는 변인이었으며(박지숙 등, 2009),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입증한 김성애와 박성연(2009)의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도 공격성에 관련된 유아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만, 공격성이 발달을 예방하고 감소하는데 대한 정보를 주는 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유아기 공격성 발달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재변인을 포함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규명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격성 초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환경 및 유아 개인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선행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환경 변인으로 부모의 거부/방임적 태도 및 보육경험을 설정하였고, 유아 개인변인으로 기질과 자기조절을 설정하였다. 또한 자기조절을 유아기 공격성 발달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설정하고 자기조절의 중재 효과를 함께 규명해보고자 한다. 중재모델은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 효과의 방향과 정도에 영향을 주는 중재변인을 포함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유아들을 이해하고 공격성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거부/방임적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및 보육경험은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자기조절은 공격성과 어머니의 거부/방임적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및 보육 경험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4, 5세 유아 338명 이었다. 유아들의 부모에게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평가하는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교사에게 유아의 공격성과 자기조절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350부 중 회수된 설문지에서는 응답이 부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338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의 성별 구성은 남아 176명(51.8%)과 여아 162명(47.9%)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어머니 양육 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정윤(2008)이 사용한 어머니 양육 태도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는 온정/격려(7문항), 한계성(6문항), 과보호 허용(문항) 거부/방임(6문항)의 4개 하위 요인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는 각 문항에 나타난 양육태도를 평소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따라 4점 Likert식 척도('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해당 영역의 행동특성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의 하위 척도 중 거부/방임 6개 문항을(예: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 다른 일을 평계로 혼자 놀게 할 때가 많다)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를 계산한 결과  $\alpha=.659$  으로 나타났다.

#### 2)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Plomin과 Row가 개발한 Colorado Childhood Temperament Inventory(CCTI)를 정영미(1996)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한다. CCTI는 모두 5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 중 정서성 5개 문항(예: 쉽게 화를 낸다)과 활동성 6개 문항(예: 활동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으로 측정하였다. CCTI는 4점 Likert식 척도('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이며, 내적 일치도를 계산한 결과, 정서성은  $\alpha=.864$  활동성은  $\alpha=.665$  로 나타났다.

#### 3) 자기 조절

유아의 자기조절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정란(2003)이 부모용으로 개발한 유아 자기조절 척도를 김은미(2006)가 교사용으로 변경하여 교육기관 상황에서 교사가 평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조절 중 하위 척도인 행동 억제 (예 : 많이 힘들고 피곤하여도 양치질을 반드시 하는 편이다) 10개 문항과 정서조절 (예: 어떤 일이나 놀이할 때 순서를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편이다)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이를 합산하여 자기조절능력을 계산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식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며 내적일치도를 계산한 결과,  $\alpha=.874$ 로 나타났다.

#### 4) 보육경험

유아가 경험한 보육경험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유아가 어린이집을 다닌 기간을 4개월-6개월, 6개월-1년 6개월, 1년 6개월-2년 6개월, 2년 6개월-3년 6개월, 3년 7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5) 공격성 척도

유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Crick과 Coie(1997) 및 Crick과 Grotpeter(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용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관계적 공격성 6개 문항(예: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생일날 초대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한다)과 신체적 공격성 5개 문항(예: 다른 유아를 때리고 물거나 발로 찬다)을 포함한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5점 Likert식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며 내적 일치도를 계산한 결과,  $\alpha=.850$ 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설문지의 이해도와 적절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J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만 4, 5세 어머니 30명과 담임교사 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2009년 10월 중에 연구대상 유아의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의 거부/방임적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과 보육경험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거부/방임적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과 보육경험이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공격성은 거부/방임, 보육경험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조절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거부/방임정도가 높고, 보육경험의 기간이 길며 자기조절 정도가 낮을수록 공격성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기질의 경우 정서성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활동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활동성이 높고 긍정적 정서성의 성향이 낮을수록 공격성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2.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1단계 어머니의 거부/방임적 양육태도, 2단계 정서성 및 활동성, 3단계 보육경험을 투입하고, 4단계, 자기조절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에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1단계에 투입된 어머니의 거부/방임은 유의미한 설명력이 나타났으며 공격성을 3.6% 설명해주었다. 2단계에 투입된 기질 변인은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었으며 공격성을 추가로 6.4%를 설명하였다. 3단계에 투입된 보육경험은 유의한 설명력이 있었으며 공격성을 추가로 4.1% 설명하였다. 4단계에 투입된 자기조절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

<표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1. 공격성					
2. 거부/방임	.205***				
3. 정서성	-.221**	.382***			
4. 활동성	.256***	.073	-.084		
5. 보육경험	.202***	.052	-.008	.030	
6. 자기조절	-.161**	-.301**	.082	-.041	-.161**

\*p<.05, \*\*p<.01, \*\*\*p<.001

&lt;표 2&gt;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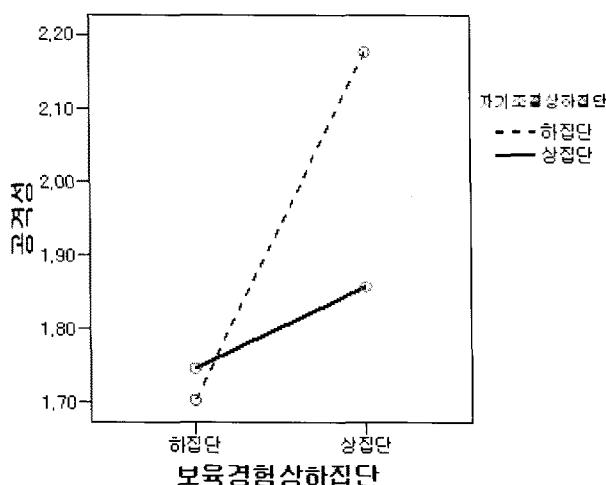
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beta$	$\beta$	$\beta$	$\beta$	$\beta$
어머니의 거부/방임		.205***	.130*	.120*	.099	.105
정서성			-.151 **	-.154 **	-.131 *	-.852 *
활동성			.234 ***	.229 ***	.228 ***	.610 *
보육경험				.188 ***	.197 ***	1.157 *
자기조절					-.096	.163
거부/방임 × 자기조절						-.002
보육경험 × 자기조절						-1.095 *
정서성 × 자기조절						.993
활동성 × 자기조절						-.486
$\Delta R^2$			.064	.041	.004	.025
$R^2$		.036	.100	.141	.145	.170
F		12.539 ***	12.411 ***	13.649 ***	11.225 ***	7.439 ***

\*p<.05, \*\*p<.01, \*\*\*p<.001

&lt;표 3&gt; 자기조절 상하집단에 따른 회귀계수

집단	회귀계수	$\beta$
상집단(N=111)	.084	
하집단(N=49)	.328 **	

\*\*p<.01



&lt;그림 1&gt; 공격성에 대한 보육경험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보육경험과 자기조절은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beta = -.1095, p < .05$ ), 이는 중재 변인인 자기조절의 정도에 따라 보육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호작용 변인은 공격성을 추가로 2.5% 설명하였다.

5단계에서 나타난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보육경

험과 공격성의 관계가 자기조절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자기조절의 수준을 상하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조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평균+1SD를 상집단(N=111)으로 하고 평균-1SD를 하집단(N=49)으로 구분하였다. 상하 집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공격성에 대한 보육경험 회귀계수를 산출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각 집단별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조절 상집단에서는 보육경험은 공격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84, ns$ ). 반면에 자기조절 하집단의 경우 보육경험은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28, p < .01$ ). 이러한 자기조절의 중재적 영향에 대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 IV. 논의

본 연구는 유아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거부/방임적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및 보육경험을 설정하고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과 유아의 자기조절이 이러한 관계를 중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거부/방임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유아의 분노가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 또한 어머니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좌절된 경험이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바람직한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은 정서조절능력이 떨어지며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

다는 선행연구(e.g., Shields & Cicchetti, 1998, 2001; 김지현·박경자, 2006)와 유사한 결과이다.

부모의 거부/방임적 양육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애착이론을 근거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애착이론에 의하면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비일관적이며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에 유아는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대인관계에 기초가 되는 부정적인 내적 표상을 발달시키게 된다. 따라서 가정에서 빈번하게 거부 및 방임적인 양육을 경험한 유아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정적인 대인관계의 표상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공격성 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고 방임적일수록 유아는 공격행동이 효과적이며 유용하고 사회적 우위의 확보나 자존감 유지 등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왜곡된 지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

또한 Rohner의 부모 수용-거부 이론(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을 기초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Rohner의 이론에 의하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아동이 부모에 의해 수용 또는 거부된다고 지각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Rohner, 1986). 특히 어머니가 강압적이고 처벌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아동은 부모의 태도를 거부로 지각하게 되며, 아동의 공격적 행동은 이러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거부와 방임적 태도는 부정적 정서의 의사소통 유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어머니가 거부 및 방임적 태도를 빈번하게 보일 경우 어머니는 분노와 냉정함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아동에게 전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Brown 등(2007)은 가정에서 치우기 과제(clean-up task)를 주고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어머니가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가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보았다.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의 영향력을 보면 활동성과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의 경우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이 높은 유아는 신체적 움직임이 많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타인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며 행동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lker et al., 2001). 정서성은 타인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질적 특성으로 부정적 정서성은 사회적 유능성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황혜정·김경희, 1999). 또한 부정적 정서성은 정서조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정서조절능력은 공격성을 가장 잘 예언하는 변인이다(박지숙 등, 2009).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들은 분노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정서의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격적인 행동의 정도가 높을 수 있다(김지윤, 2007).

또한 보육경험이 유아의 공격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어린 시기부터 보육을 경험한 경우에 공격성 정도가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육시설은 유아에게 어머니와의 장시간 격리와 집단 일과에 대한 적응 및 또래들과의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적응 과제가 요구되는 사회적 환경이다. 따라서 어린 시기부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보육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유아들은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아직 미성숙하므로, 보육시설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유아기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문제행동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Phillips 등(1987)의 연구에서 영아기에 보육시설에 다녔던 유아가 신체적, 언어적으로 더 공격적이고 활동적이었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생후 1년 이전부터 보육경험이 있는 유아들이 생후 1년 이후에 보육경험을 한 유아들보다 동료들에게 더 공격적이며 교사에게 비동조적인 것으로 보고한 박경자(1992)의 연구, 보육 시작 시기가 늦을수록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이 더 적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김숙령(1997)의 연구 그리고 생후 4-5년 간 보육경험이 있는 유아가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공격성이 더 높고 성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연구(NICHD, 2003)와 유사한 결과이다.

자기조절의 중재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아의 자기조절 수준에 따라 보육경험과 공격성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조절의 정도가 높은 경우 보육경험 기간과 공격성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며, 이는 유아의 자기조절이 보육경험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해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재효과는 보육경험과 공격성 사이의 관련성이 유아의 자기 조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유아의 개인적 행동 특성과 미시 체계인 보육환경 경험이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공격성 발달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조절이 발달된 유아는 또래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교사의 지시에 순응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서 보육시설의 집단생활에 쉽게 적응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장기간의 보육경험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보육경험이 자기조절과 상호작용하는 기제를 통하여 유아의 공격성과 같은 심리사회적 부적응 행동으로 발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부모의 거부/방임 및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자기조절의 중재효과가 없었으며 따라서 자기조절과 같은 유아 개인 차원의 변인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 차원에서의 중재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조혜진과 이기숙(2004)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변인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질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보육기관

에서 교사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교사-유아 관계의 친밀감과 같은 변인의 중재적 영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거부/방임적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및 보육경험은 유아의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으며, 이는 유아기 중요한 미시환경인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장기간의 보육 경험이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기질과 같은 유아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장기간의 보육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기조절에 의해 중재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높은 수준의 자기 조절능력이 유아기 공격성 발달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은 2세 무렵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이후 유아기에 획득되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제이다. 최근 유아들이 보육시설에 보내는 기간과 시간이 더욱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로 인한 부모와의 격리가 유아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자기조절 훈련을 통한 공격성의 예방적인 중재 방안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인 이외의 보육환경의 질적인 측면 및 교사와 관련된 변인 등이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어머니를 통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교사 및 어머니의 응답이 실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어머니의 면담과 관찰법을 적용한 추후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에 기초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유아에게 나타는 공격성의 개인적 발달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격성에 대한 원인 및 예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성애 · 박성연(2009).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간의 관계: 시설보호유아와 일반 유아의 비교. *아동학회지*, 30(1), 43-57.
- 김숙령(1997). 영유아기의 탁아 경험과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사회 정서적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2), 5-18.
- 김은미(2006).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어머니 변인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지윤(2007). 유아의 기질 및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 박경자(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8.
- 박윤조 · 송하나(2008).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1, 139-149.
- 박경자(1992). 영유아기 타인양육이 학령전 어린이의 사회 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3(2), 217-227.
- 박지숙 · 임승현 · 박성연(2009).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 양육 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3), 85-98.
- 윤진주 · 강신영 · 이복주(2005).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성 연구 :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5), 761-770.
-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미(1996). 유아의 기질과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희 · 이미숙(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22(40), 115-126.
- 조혜진 · 이기숙(2004).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에 미치는 가족 특성, 보육경험 및 기질 변인 분석. *한국유아교육학회*, 24(4), 263-284.
- 최정윤(2008). 보육시설 아동의 코티솔 수준 : 보육 경험, 사회 계층,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정 · 김경희(1999).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4(3), 139-151.
- Aureli, T., & Procacci, M. A.(1992). Day-care experience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83(1), 45-54.
- Belsky, J.(1988).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3), 235-272.
- Calkins, S. D.(1994). Origin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59, serial no. 24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own, S. A., Arnold, D. H., Dobbs, J., & Doctoroff, G. L.(2007). Parenting predictors of relational aggre-

- ssion among Puerto Rican and European American school-age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1), 147-159.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Hart, C. H., Nelson, D. A., Olsen, S. F., Robinson, C., Jin, S., Win, P., Olsen, S. F. & Newell, L. D.(2000). Peer acceptance in early childhood subtypes of social withdrawal behavior i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1), 77-81.
- Eisenberg, N., & Fabes, R. A.(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Vol.14). Newbury Park, CA : Sage.
- Goodman, S. H., Brogan, D., Lynch, M. E., & Feilding, B.(1993).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Child Development*, 64(3), 516-531.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3). Dose amount of time-spent in child care predict socio-emotiona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74(3), 976-1005.
- Rohner, R. P.(1986). *The warmth dimensions: Foundation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ousand Oak, CA: Sage.
-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 Patterson, G. R.(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 Phillips, D., McCartney, K., & Scarr, S.(1987). Child care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537-532.
- Shields, S. A., & Cicchetti, D.(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381-395.
- Tremblay, R. E.(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Vaillancourt, T., Miller, J. L., Fagbemi, J., Cote, S., & Tremblay, R.(2007). Trajectories and predictors of indirect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33(4), 314-326.
- Walker, M., Berthelsen, D., & Irving, K.(2001). Temperament and peer acceptance in early childhood: Sex and social status differences. *Child Study Journal*, 31(3), 177-192.

접수일 : 2010년 03월 12일

심사일 : 2010년 03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6월 21일